

## 낙농육우산업의 여건전망과 대응방향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1997년은 그동안 내실(內實)보다는 외형(外形)에만 집착해 왔던 우리 경제운영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의 한 해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초부터 한보·한라·기아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의 연쇄 도산이 줄을 잇는 속에 정부의 대응방식이 사태악화를 방치하는 양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태국·인도네시아에서 비롯된 외환위기가 번져오면서, 11월에 가서는 우리 경제는 기본이 튼튼하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경제정책책임자의 말과는 달리 IMF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금융·노사·정부개혁과 시장개방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IMF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부도직전 단계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 파견제 등 새로운 제도도입과 기업의 감량경영추세 속에서 금년 3월에 이미 실업자수 140만인, 실업률 6.9%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대로 간다면 올 하반기에는 실업자수 200만, 실업률 10%를 웃도는 대량실업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액 1,500억 달러를 웃도는 외채의 이자상환만도 연간 140억달러 가량을 지불해야 하며 재정·금융 정책을 비롯한 주요경제 정책운영을 사전에 IMF와 협의해야 하는 IMF 관리시대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 지금으로서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2~3년이 아닌 5~10년이상 기간동안 우리 경제의 모든 부문은 IMF충격 아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66

4월초 환율안정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5% 가량 인하되었으나  
 생산비 가운데 배합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낙농 33%,  
 한육우 21%를 각각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료가격의 안정은 양축농가의 경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하겠다.

99

이 글에서는 우리의 관심사인 낙농육우분야에 한정해서 IMF관리시대에 예상되는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및 과제에 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리 모두가 생생하게 경험한 바와 같이 양축농가에 대한 IMF시대의 영향은 먼저 사료수급의 어려움과 사료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배합사료 원가의 77%를 차지하며 그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원료가격이 환율급등으로 인해 상승함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은 작년 12월 중 두 차례에 걸쳐 도합 약 40%가 인상된 바 있다. 4월초 환율안정에 따라 배합사료 가격이 5% 가량 인하되었으나 생산비 가운데 배합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낙농 33%, 한육우 21%를 각각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료가격의 안정은 양축농가의 경영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하겠다.

앞서 본 사료원료가격 등귀보다 한층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던 것은 사료원료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사료원료 수출국측은 국내은행의 신용장(L/C)을 거부하고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등 거래관행을 변경함으로써 사료회사의 원료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국 농무부의 농산물 수출 신용자금인 GSM-102 자금을 15억달러까지 확대배정 받음으로써 당장의 어려움은 벗어나고 있으나 우리의 외환수급 및 환율안정을 통해서만 잠재적인 불안을 벗어날 수 있게된다.

사료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축산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의 확산은 가축의 홍수출하에 따른 소값폭락으로 이어졌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수매정책에 힘입어 쇠고기 재고 증가에 따른 부담은 남아있으나 산지 한우가격의 더이상의 하락은 억제할 수 있었다. 현재로서는 IMF의 초기충격이 가져다준 영향은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몇가지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먼저 경제침체 및 소득감소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감소 내지 정체문제이다. 농림부의 추정에 따르면 쇠고기의 소비량은 97년의 36만 4천톤에서 98년의 34만 3천톤으로 약 6%, 우유(원유기준) 소비량은 97년의 239만 4천톤에서 98년의 234만 1천톤으로 약 2%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66

양축농가의 소득은 번식우의 경우 97년의 1두당 25만원  
 소득으로부터 98년에는 5만원 정도의 손실로, 비육우의 경우  
 97년의 1만 1천원 소득으로부터 13만원 내외의 손실로,  
 우유의 경우는 1kg당 소득이 175원 소득으로 부터 141원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99

둘째로 축산물 생산비는 사료 유류 축산기자재 등 투입재 가격상승으로 증가되며 축산농가의 소득은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협중앙회가 추정한 축산물 생산비는 송아지가 두당 97년의 141만 8천원에서 98년의 162만원으로 14% 증가하며 비육우(500kg)는 두당 97년의 301만 8천원에서 98년의 290만 3천원으로 4% 하락하고, 우유생산비는 97년의 1kg당 500원에서 98년의 642원으로 28%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축종별로 본 양축농가의 소득은 번식우의 경우 97년의 1두당 25만원 소득으로부터 98년에는 5만원 정도의 손실로, 비육우의 경우 97년의 1만 1천원 소득으로부터 13만원 내외의 손실로, 우유의 경우는 1kg당 소득이 175원 소득으로 부터 141원으로 약간 감소할 것으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셋째로 그동안 축산분야 구조개선 사업재원의 절반이상 차지해왔던 축산발전기금의 신규 조성액이 크게 축소됨으로써 양축농가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축산기금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축산물수입이익금이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수입자율화와 쇠고기 수입부과금(mark-up)의 단계적 감축 및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 감소로 급격히 줄어들어 2001년 이후에는 마사회 납입금만이 남게되어 축발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지원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가격상승이 가져올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개선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축협중앙회의 추정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가격에 대비한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비 비율은 환율 1천원일 경우 1:2.7에서 1,400원일 경우 1:2.1로 크게 낮아져 통상 수입고기와 한우고기간의 품질격차 1:1.8에 상당히 접근하게 되며, 탈지분유의 경우는 그 비율이 환율 1천원일 경우의 1:1.02에서 1,400원일 경우 1:0.73으로 크게 낮아져 수입의 어려움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고회환율이 지속된다면 수입축산물에 대한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에 안주(安住)하는 경영방식은 환율저하때는 엄청난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같이 볼 때 IMF시대가 낙농육우산업에 미칠 영향은 결코 단기적 일시적이거나 경기침

66

축산물 공급확대보다는 수요창출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의 감소 내지 정체와 정책지원사업재원의 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공급의 확대지향은 수급불균형과 가격폭락을  
 가중시킬 뿐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역행할 뿐이다.

99

체에 따른 순환적 성격이 아니라 구조적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체질전환을 요구하는 성격의 요구임을 알 수 있다. 축산물소비의 지속적인 감소 내지 정체, 축산물 생산비 등귀와 양축소득의 감소, 축산정책지원사업의 축소 등 예상되는 모든 파급효과는 축산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정책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효율성제고를 통해서만 성공적인 대응이 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인내가 요구되는 낙농육우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할 대응방향 및 과제에 관해 몇가지 지적해두고자 한다.

먼저 축산물 공급확대보다는 수요창출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의 감소 내지 정체와 정책지원사업재원의 감축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공급의 확대지향은 수급불균형과 가격폭락을 가중시킬 뿐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역행할 뿐이다.

양축농가와 유업체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을 국내산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에 노력을 집중해야하며 산업전체로서 비생산적인 과장광고 등을 자제하고 당해산업 전체의 수요를 진작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축산자조금제도를 활성화하고 낙농육우분야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다.

둘째로 수입원료에 의존하는 배합사료 비중을 줄이고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조사료이용 증진대책의 방향으로 초지관리의 강화와 사료작물 재배확대 등 두가지 방안에 관해 전문가 간에 의견차이가 있으나 구체적 검토를 통해 경제성이 높은 시책개발에 조속히 착수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육우산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실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행의 전근대적인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뿐 아니라 유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내실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㉞